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醫案의 研究 (中國 宋·金·元·明 時代 醫案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교실

權保亨 · 具炳壽

I. 緒 論

醫案이란 醫師의 病證論治를 記錄한 것으로 病案이라고도 한다. 그 內容은 症狀, 辨證, 立法, 處方, 用藥에 關한 事項 뿐 만 아니라, 患者의 姓名, 性別, 年齡, 職業等 까지 包括하고 있으며, 西漢의 名醫 淳于意¹⁾가 自身이 治療한 25例의 醫案을 記載했는데, 당시에는 이를 診籍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최초의 醫案이 되었다²⁾.

中國 宋·金元·明 時代 醫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宋 以前時代 까지의 醫學이 內經의 理論的 基礎위에서 臨床經驗을 累積시킨 시기라고 볼 때, 宋代는 臨床經驗의 基礎위에서 理論上의 探究와 發展을 進行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政府의 권장으로 勅撰 本草書가 다수 출간되었으며, 理學의 盛行으로 運氣學說이 발달한 시기였다³⁾.

金元時代에는 基本理論에 대하여 새로운 研究가 시

도되면서 여러 醫學流派가 出現되었는데, 그들의 基本理論 探究는 臨床으로 부터 出發하여 疾病發生과 變化의 規律을 추구하였으며, 특히 病機와 關連있는 病理學說 方面에 重點을 두었다. 金元代의 主要한 醫學流派로는 劉完素, 李杲, 張從政, 朱震亨의 金元四大家를 들 수 있다⁴⁾.

明代의 醫學은 宋·金元 時代에 발달한 醫學理論을 臨床을 통해 綜合折衷하여 理論이 다른 各派가 점차 통일돼 하나의 比較적 系統적이고 完備된 理論體系를 이루었으며, 金元學派의 論爭에서 비롯된 各派間의 論爭이 比較적 極烈하였다. 그 例로 溫補派와 補陰派間의 論爭, 命門과 相火에 關한 論爭, 三焦에 關한 論爭을 들 수 있으며, <內經>과 <傷寒論>의 注解와 整理에 대한 論爭이 各家의 著作中에 反映되기도 하였다⁵⁾.

이상 中國 宋·金元·明 時代 醫學의 學術의 特徵을 간술하였으며, 이 時期 有名醫家의 醫案은 그 時代의 獨특한 醫學理論 뿐 만 아니라 臨床實技까지 記載되어 있어, 逆으로 各 醫家가 活動했던 時代의 學問的 潮流를 類推解釋할 수 있는 動機를 提供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著者는 <宋元明清名醫類案>⁶⁾을 基準으로, 宋·金元·明 時代 醫家의 醫案中 神經精神科 疾患⁷⁾

1) 淳于意 : (대략 B.C. 215年 - ?) 西漢時의 著名醫家. 太倉長의 職을 지냈으므로 倉公 혹은 太倉公이라고도 稱함. 脈法의 運用을 重視하고, 治病에 언제나 針藥을 併用해서 좋은 療效를 얻었음. 『史記·扁鵲倉公列傳』에 그의 治療 25個病例의 情況이 記載되었는데, 그중 西漢以前 醫學文獻中의 有關材料가 保存되어 있고, 또 그의 疾病治療에 成功한 經驗과 失敗한 敎訓이 記錄되어, 中國 最初의 病案材料가 되고 있다.
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社, p. 222, 1985.
3)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140, 1984.

4) 上揭書, p. 193.

5) 上揭書, p. 237.

6) 姚若琴 譯 : 宋元明清名醫類案(1), 上海, 上海書店, 1988.

7) 한국한의학연구소 기초이론연구실 :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연구(1), 1994.12-1995.9.

과 關聯된 醫案을 研究考察하고, 各 疾患의 例에 따라 現代 西洋醫學의인 見解를 比較 檢討한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어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察

1. 宋代

1.1. 宋代의 政治·社會的 背景

宋은 唐末以後 五代⁸⁾의 分裂期를 克服하고 趙匡胤이 960년에 建立하여, 1127年 女眞族이 세운 金에게 망하였으며, 이 때 宋 欽宗의 동생인 康王이 臨安(杭州)으로 도읍을 옮겨 南宋을 建立하였으나, 결국 蒙古高原에서 일어난 蒙古族에게 1279年 망하였다.

趙匡胤은 五代國家 중 하나인 後周의 節度使로서 後周에 이어 宋을 建立하였으며, 강력한 中央執權體制인 君主獨裁를 시작하여, 國策에 있어, 첫째 中央執權으로 中央의 軍 政 財 法등의 權力이 地方의 것보다 우월하게 하였고, 둘째 文人政治를 제창하여 武人의 정치간여를 엄금하였으며, 이는 장차 重內輕外, 重文輕武의 폐단을 가져와 內的으로는 강력한 통치를 하였으나, 國防力은 약해져 邊方의 소수민족에게 잦은 위협과 침략을 받게되는 계기가 된다.

宋代의 科擧制度는 唐代의 것을 이어받아 貢擧와 制擧의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貢擧는 政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制擧는 필요가 있을 때 皇帝가 詔를 내려 실시한 科擧였으며, 畫 醫 武 3科의 科擧制度는 前代에 없었던 것이 特徵이다.

1.2. 宋代醫學의 學術的 特徵

韓醫學의 發展過程에서 볼 때, 兩晉 南北朝에서 唐 五代에 이르기까지의 醫學이 內經의 理論의 기초위에서 進一步하여 臨床經驗을 累積시킨 시기라고 본다면, 宋代의 醫學은 앞의 臨床經驗의 기초위에 理論上의 探究와 發展을 進行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傷寒論이후 약 700-800년이 경과하는 동안 臨床知識

이 누적되어 疾病의 發生과 發展過程에 대한 認識, 治療 및 處方用藥의 法則把握에 대해 모두 큰 進步를 하였다. 또한 製紙術과 印刷術의 發明은 醫學知識을 보급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政府의 勸獎으로 本草가 發達하였고, 理學의 盛行으로 運氣學說이 發達한 것 역시 宋代醫學의 特徵이라 할 수 있다.

1.3. 許學士 醫案

許叔微는 字가 知可이며, 翰林學士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許學士라고도 불렸다. 주요 著作으로는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類證普濟本事方 등이 있다.

許의 醫學上 貢績 가운데 하나는 辨證에 대한 부분인데, 그는 仲景傷寒論이 三陰三陽으로 分證을 하였지만, 病情을 分析하고 治則을 결정하는 關鍵은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의 八綱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八者 중에서도 陰陽이 總綱이 된다고 하였다.

<悲>

④ 原文 : 一婦無故悲泣不止. 或謂之有祟 祈禳請禱不應. 許學士曰 金匱云 婦人臍燥. 喜悲傷欲哭. 象如神靈所作. 數欠伸者. 甘麥大棗湯主之. 用其方 十四貼而愈. 蓋悲屬肺. 云經在臍爲肺. 在志爲悲. 又曰精氣并於肺則 悲是也. 此方補脾而能治 肺病者 虛則補母之義也.

④ 解說 : 마치 귀신들린것 처럼 無故하게 悲泣不止 하는 婦人을 치료하는데 있어, 許는 金匱要略의 婦人臍燥 症狀을 引用하여 甘麥大棗湯으로서 治療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는 肺의 志는 悲로 補脾而能治肺病이라 하여 虛則補其母의 意味로써 說明하고 있다. 즉 五行相生중 土生金의 原理를 利用하여, 補脾시키는 甘麥大棗湯을 服用시킴으로써 肺의 志인 悲로 인한 病을 治療한다고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臍燥는 喜悲傷欲哭 象如神靈所作 數欠伸의 症狀으로 나타나며⁹⁾, 이는 西洋醫學에서는 心理的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 痙攣發作인 히스테리성 痙攣¹⁰⁾으로 表現되기도 한다.

8) 唐末以後 宋이 建立될 때까지의 약 54년간 존재하였던 後梁, 後唐, 後晉, 後漢, 後周의 다섯나라를 말한다.

9) 原文 : “婦人臍燥 悲傷欲哭 象如神靈所作 數欠伸 甘麥大棗湯主之” (欽定四庫全書 中 金匱要略論註 卷二十二)

10) 黃義完 외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612, 1987.

<怔忡>

① 原文：一尼 惡風倦怠 乍寒乍熱 面赤 心怔忡 或時自汗 是時疫氣大行。醫見其寒熱 作傷寒治之。用大小柴胡湯雜進 數日病急。許診視告之曰 三部無寒邪脈。但厥陰弦長而上魚際 宜服抑陰等藥。乃以生地二兩。赤芍一兩。柴胡 秦艽 黃芩各五錢。謂細末 蜜丸 如梧桐子大。每服三十丸。烏梅湯吞下。日三服。良愈。

② 解説：한 승려가 惡風倦怠 乍寒乍熱 面赤 心怔忡 或時自汗의 症狀이 있어 많은 醫師들이 傷寒으로 알고 治療를 하였으나 病勢가 더욱 깊어져, 許가 診察하여 보니 脈上에 寒邪가 없고 厥陰脈이 弦長하여 抑陰시키는 藥物을 服用시킴으로써 治療하였다고 하였다.

弦脈은 肝部의 本脈으로 다른 部位에 나타나면 血虛하기 때문에 주로 盜汗, 手足痿痺, 皮毛枯槁가 발생하며, 瘧疾로 寒熱이 往來하기도 하고, 잘 놀라기도 한다고 하였다. 故로 弦脈은 瘧疾과 驚悸를 주재한다고 하였으니¹¹⁾, 怔忡의 脈이 바로 이와 같이 잡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不寐>

① 原文：四明董生 臥則魂飛揚。身雖在床而 神魂離體。驚悸多魘¹²⁾。通宵不寐 衆皆以爲心病 醫之無效。許曰以脈言之 肝經受邪。遊魂爲變。非心也。以肝有邪。魂不得歸於肝。是以臥則飛揚 若離體也。肝主怒。必小怒則劇。用眞珠母爲君。龍齒佐之。因有龍齒安魂 虎睛定魄之說。

한 사람이 臥則魂飛揚 身雖在床 而神魂離體 驚悸多魘 通宵不寐의 症狀이 있어 心病으로 알고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가 없어, 許가 診察을 하여보니 肝經에 邪氣가 든 것이지 心病은 아니었다. 즉 肝에 邪氣가 侵入하여 魂이 肝에 다시 歸하지 못해 발생하는 病으로, 眞珠母를 君藥으로 삼고 龍齒를 佐藥으로 삼아 治療를 하였다. 이는 金匱要略의 酸棗仁湯¹³⁾을 許가 變造한 것으로 平肝熄風의 작용이 있는 眞珠母, 龍齒 二味를 肝經에 直入시켜 飛揚浮越한 神魂을 鎮靜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朴奩：入門診斷學譯釋，서울，大星文化社，pp. 279-280, 1996.

12) 장포대할 염.

13) 李尙仁 의：方劑學，서울，永林社，pp. 206-207, 1990.

2. 金·元代

2.1. 金元代的 政治·社會의 背景

金은 女眞族에 의해 建國된 나라로, 北方에 居住하는 生女眞과 南方에 居住하는 熟女眞의 二部로 나뉘어 있으며, 生女眞의 阿骨打는 遼를 壓迫하여 승리함으로써 나라를 세워 國號를 金이라하고 金太祖가 되었다. 金은 1125年 遼를 멸망시키고, 1126年 宋의 京城을 占領하여 宋을 남쪽으로 몰아낸 후, 數 차례에 걸쳐 南宋을 侵犯하였으나 韓世忠, 岳飛 將軍의 奮戰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講和하여 각기 安定을 圖謀하였다.

蒙古高原에서는 1189年 鐵木眞(Temujin)이 汗位에 올라 成吉思汗이 되었으며, 1211년에는 金을 공격하였다. 결국 金은 1234年 成吉思汗의 三子인 窩闊台(Ogotai)에 의하여 併呑되었다. 窩闊台 死後, 成吉思汗의 幼子 拖雷(Tulu)의 아들인 忽必烈(Khubilai)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1271年 國號를 元이라고 改稱하였다. 1279年 南宋까지 滅하여 中國을 統一함으로써 元의 最大版圖가 形成되었으며, 歷史上 最大의 帝國을 建設하였다.

元은 鐵木眞이 大汗이라 稱한 이래, 3次의 西征을 통해 四汗國을 세우고, 忽必烈이 南宋을 併呑할 때까지 不過 74年(1206-1279), 宋을 滅亡시킨 후 不過 90年(1279-1368)만에 瓦解되었는데, 그 빠른 滅亡의 原因은 蒙古人의 馬上得之 馬上治之의 結果로, 文化水準이 낮은 部族社會의 政治技術으로써 農商業社會의 百姓을 다스리는 것이 통하지 않아, 바로 이것이 元의 직접적인 衰退理由가 되었다.

元朝는 傳統的인 文化를 거부하고 도리어 漢人의 蒙古化를 強制하였으며, 中國人이 尊重하고 있던 科擧를 80年 동안 廢止하였다. 이 결과 宗래 士大夫階級の 文學은 모두 衰弱하고, 庶民을 대상으로 하는 俗文學 및 戲曲 등이 流行하였다.

2.2. 金元代醫學의 學術의 特徵

宋代 醫學理論의 研究는 주로 傷寒論과 運氣學說의 연구로 나타난다. 傷寒論에 대해 구체적인 몇가지 問題를 提起하였지만 基本理論 自體에는 현저한 발전이 없었고, 運氣學說은 基本內容이 難解하여 臨床醫들이 淸

게 접하기 어려웠으므로 傳統的 理論에 대해 별다른 應用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金元代에 이르러 理論研究의 相當한 發展에 副應하여, 基本理論에 대해서 새로운 研究가 시도되었는데, 金元時代 醫學流派의 出現은 이러한 趨勢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基本理論 探究는 臨床으로부터 출발하여 疾病發生과 變化의 規律를 追究하였는데, 특히 病機와 關聯있는 病理學說 方面에 重點을 두었다.

金元代 醫學流派의 主要한 人物은 金元四大家로, 즉 劉完素 李杲 張從政 朱震亨 등 四人이다.

劉完素는 運氣學說에서 重要視하는 六氣致病의 影響을 받았으며, 六氣중에서도 火와 熱이 가장 중요한 致病의 因素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運氣學說의 氣化部分을 크게 발전시켜 六氣가 모두 化火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절대다수의 疾病이 모두 火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니 治療에서도 역시 寒涼한 藥을 爲主로 하여, 後世에 그를 寒涼派라고 불렀다.

張從政은 劉完素의 一派에 속하지만, 疾病治療에 있어 邪氣를 人體內에서 驅逐하는 方法으로 汗吐下 三法을 爲主로 해야 하며, 특히 吐下의 法이 效果가 가장 迅速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後世에 이 一派의 主張을 攻下派라고 일컬었다.

李杲는 劉完素 張從政 二人이 六氣의 外感作用을 強調한데 반해, 各種 疾病의 發生이 모두 內傷 즉 體內正氣의 損傷이 主要 因素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따라서 疾病을 治療함에 있어, 脾胃之氣를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하였으므로, 後世에 그를 補土派라고 稱하였다.

朱震亨은 劉完素와 間接的인 師承關係가 있어 그의 影響을 많이 받았지만 火에 대한 觀點은 달랐다. 朱는 주장하기를, 人體內에는 相火가 있는데 相火는 聲色의 刺戟을 받아 쉽게 妄動한다고 하였다. 色慾의 衝動에 의해 陰精이 쉽게 耗泄되므로 人體內에는 陰常不足而 陽常有餘하다고 하였고, 陰精의 不足은 疾病發生에 가장 중요한 因素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 補陰精而抑相火를 爲主로 해야 한다고 하여, 後世에 그를 滋陰派라고 稱하였다.

2.3. 張子和 醫案

張從政의 字는 子和이고 스스로 戴人이라 불렀으며,

著書로는 儒門事親 15卷이 있다.

<瘵¹⁴⁾證>

④ 原文：一婦人 年三十 病風搐目眩 角弓反張 數日不食 諸醫作驚風 風竊治之. 用南星 烏附等不效. 子和曰 諸風掉眩 皆屬肝木 曲直搖動. 風之用也. 陽主動. 陰主靜. 由火盛制金 金衰不能平木 肝木茂¹⁵⁾而自病故也. 先涌風 涎二三升. 次以寒劑下十餘行. 又以針刺百會穴. 出血二盃. 立愈.

④ 解說： 한 婦人이 風搐目眩 角弓反張 數日不食의 症狀가 있어 많은 醫師들이 驚風으로 알고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張은 諸風掉眩 皆屬肝木¹⁶⁾이라 하여, 火가 盛해 金衰함으로써 金이 能히 肝木을 剋하지 못해 發生한 病으로 把握하고, 火에 대한 對處로 寒劑를 投藥하였다.

<喜>

④ 原文：戴人曰 昔莊先生 治一人 以喜樂之極而病者. 莊切其脈 爲之失聲 曰吾取藥 去數日 更不來. 病者 悲泣辭 其親友曰 吾不久矣. 莊知其將愈 慰之詰 其故莊 引素問曰 懼勝喜 可謂得元關¹⁷⁾者也. 然華元化 以怒郡守 而幾見殺 文摯以怒 齊王而竟殺之 欲活他人 反戕厥躬. 悲夫.

戴人路經古毫 逢一婦 病喜笑不止 已半年. 衆醫治之 術窮 戴人以滄鹽成塊者 二兩餘. 火燒通赤. 放冷研細 以河水一大碗. 同煎三五沸. 稍溫. 與飲之. 以釵¹⁸⁾探咽中. 吐去熱痰五升. 次服火劑. 火主苦. 解毒湯是也. 不數日而笑定矣. 內經曰 神有餘則 笑不休. 所謂神者. 心火是也. 火得風而 成焰即 笑之象也.

④ 解說： 張은 喜樂이 지나쳐서 病이 된 사람과 웃음이 半年이나 그치지 않는 婦人, 두 경우를 例로 들었다. 前者는 患者로 하여금 悲泣토록 만들어 治療를 하였으니, 이는 懼勝喜의 原理를 利用한 것이다. 즉 心의 志는 喜이고 腎의 志는 恐으로, 腎이 心을 剋하는 水剋

14) 중풍들 경, 목뻐뻐할 경.

15) 풀우거질 무.

16) 任應秋 編：黃帝內經素問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41, 1986.

17) 風水家들이 水源을 元關이라 함.

18) 비녀 차.

火의 五行原理를 治療에 應用하였다.

後者は 內經의 神有餘則笑不休¹⁹⁾를 引用하였는데, 여기서 神은 心火라 하여 心火가 致盛해서 웃음이 멈추지 않을 때는 소금물을 먹이고 비녀로 咽喉部를 刺戟해 吐하도록 만들고, 다시 苦味로 構成된 解毒湯을 投與해서 治療한다고 하였다. 吐法을 治療에 이용하는 것은 致盛한 火를 푸는데 있어 汗吐下 三法을 中心으로 하는 攻下派의 特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苦味²⁰⁾는 五行중 火에 配屬되며 主로 寒劑로 構成되어 있는 것에 着眼한 것으로 思料된다.

<悲>

① 原文：息城司侯 聞父死於賊 乃大悲哭罷 便覺心痛 日增不已 月餘成塊 狀若覆杯 大痛不任 藥皆無功 乃求於戴人. 戴人至 適巫者 在其傍 乃學巫者 雜以狂言. 以謔病者. 至是大笑不忍 回面向壁 一二日 心下結硬皆散 所謂喜勝悲. 內經自有此法也.

② 解說：한 사람이 父親이 賊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悲哭하더니 드디어 心痛을 느끼면서 한달여가 지나니 塊가 생겨 臍間을 덮어 놓은 것과 같았고 疼痛을 견디지 못하였다. 이에 張은 무당으로 하여금 患者가 웃음을 참지 못하도록 만들어 心中에 맺혔던 塊가 흩어지게 만들었다. 張이 말하기를, “憂하면 氣가 結하고 喜하면 百脈이 舒和하며, 또 喜勝悲²¹⁾라는 것이 內經에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이는 五行相剋 原理중 火剋金의 理致를 應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怒>

① 原文：項關令之妻 病怒不欲食 常好叫呼怒罵 欲殺

左右 惡言不輟²²⁾ 衆醫處藥 半載無功. 戴人視之曰 此難以藥治. 乃使二娼 各塗丹粉. 作伶²³⁾人狀. 其婦大笑 次日又令作角觥²⁴⁾. 又大笑 復於其傍 常以兩個 能食之婦. 誇其食美. 此婦亦索 其食一嘗之 不數日 怒減食增而瘥. 後生一子. 夫醫貴有才 無才則何以應變無窮.

② 解說：한 婦人이 飲食을 먹으려하지 않고 怒罵를 일삼으며 주위 사람을 죽이려 하고 惡談을 그치지 않아 많은 醫師들이 治療을 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張이 診察하여 보니 藥으로 治療될 症狀이 아니라고 判斷하고 두 女子로 하여금 丹粉을 발라 俳優처럼 꾸며 보이기도 하고 씨름꾼 모양으로 차려 보이기도 하니, 그 婦人이 역시 大笑하면서 症狀이 好轉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張은 醫師는 才能이 있어야 하며 藥의 處方에만 執着하여도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하지만 喜情으로 怒情을 治療하였다는 것은, 五志相勝에 의한 治療法중 悲勝怒(金剋木)의 原理에 어긋남을 알 수 있으니, 이 역시 張이 언급한 바와 같이 醫師의 才能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驚>

① 原文：衛德新之妻 旅中宿於樓上 夜值盜劫燒舍 驚墮牀下 自後每聞有響. 則驚倒不知人. 家人輩 躡足而行 莫敢²⁵⁾冒觸以聲 歲餘不痊. 醫作心病治之. 人蔘珍珠 及定志丸 皆無效. 戴人見而斷之曰 驚者爲陽, 從外入也. 恐者爲陰, 從內出也. 驚者, 爲自不知故也. 恐者, 自知也. 足少陽膽經屬木. 膽者, 敢也. 驚怕則膽傷矣. 乃命二侍女 執其兩手於高椅之上. 當面前下, 置一小几. 戴人曰 娘子當視此一木. 猛擊之, 其婦大驚. 戴人曰 我以木擊几, 何必驚乎. 伺少定擊之 驚少緩. 又斯須 連擊三五次. 又以杖擊門. 又暗使人 擊背後之窗. 徐徐驚定而笑. 曰是何治法, 戴人曰 內經云 驚者平之 平者常也. 平常見之 必無驚. 是夜使人 擊其門窗. 自夕達曙 寢息如故 夫驚者神上越也. 從下擊几使之 下視所以收神也. 從此遂愈.

② 解說：한 婦人이 밤에 도둑의 劫辱을 당하고 大驚하였는데, 그 후 부터는 이상한 소리만 나도 驚倒不

19) 上揚書 p. 168.

“帝曰 神有餘不足何如. 岐伯曰 神有餘則笑不休 神不足則悲.”(黃帝內經素問·調經論篇 第六十二)

20) 李尙仁：本草學, 서울, 修書院, pp. 40-41, 1981.

“苦味는 主로 沈靜作用이 있다. 그러므로 下劑는 거의 苦味性物質로 下熱沈靜 降泄의 作用이 있다. 苦味는 心臟에 作用하여 勞作을 輕減시키며 心臟을 安靜시키고 疲勞를 回復케 하며 胃液의 分泌를 促進하는 作用이 있다. 苦味를 가진 藥物의 藥性은 대부분 寒性藥類이다.”

21) 任應秋 編：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1, 1986.

22) 거울 철, 그칠 철.

23) 악공 령, 광대 령.

24) 만날 지, 합할 지.

25) 세력이 큼.

省하여 醫師가 心病으로 알고 治療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이에 張이 말하기를 “驚이란 陽으로 從外入하는 것이며, 恐이란 從內出하는 것이고, 驚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恐은 스스로 아는 것이다. 또한 膽이란 勇敢한 것인데 驚怕하면 膽이 傷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婦人으로 하여금 두 손으로 椅子를 잡고 구부리게 한 뒤 그 앞에 柞을 가져다 놓고 막대기로 큰 소리가 나도록 수차례에 걸쳐 내려쳐 婦人을 거둡 놀라게 하였다. 四五次 그 方法을 쓰니 점차 놀라는 것이 鎮靜되었다고 하였다. 婦人이 이것이 어떤 治療法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놀란 것을 平하게 해주는 것이니 平이란 平常이란 뜻이다. 무엇이든 平常의으로 보면 아무 것도 놀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驚은 神이 위로 넘쳐 날치는 것인데 柞을 내려다 보게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그 神을 收斂하는 것이다. 이러한 治療法은 韓醫學의 精神療法 중 驚者平之療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驚者平之療法은 不安이나 症狀을 일으키는 原因으로서의 刺戟을 弱한 것으로 부터 順次的으로 強한 刺戟으로 주어 이들 刺戟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症狀을 解消시키는 方法이다. 이는 西洋醫學의 系統的 脫感作法(systematic desensitization)²⁶⁾과 類似하며, 이 방법은 恐怖症患者에게 특히 有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張은 驚과 恐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이라는 식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방식의 구분은 西洋醫學에서도 存在하는데, 바로 fear(두려움)와 anxiety(불안)에 대한 구분으로, fear를 뚜렷한 대상이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여²⁸⁾, 韓醫學에서의 恐의 해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頭痛>

@ 原文 : 南卿陳君. 將赴秋試. 頭痛偏腫. 連一目. 狀若半壺. 其脈洪大. 張視之 內經面腫者風. 此風乘陽明經也. 陽明氣血俱多. 風腫宜汗. 乃與通聖散. 入生薑 葱根

豆豉 同煎一大盞. 服之微汗. 次日 以草莖 入鼻中. 大出血 立消陽明風熱頭痛.

一婦 頭偏痛 五七年 大便燥結. 雙目赤腫. 眩暈. 凡療頭風之藥 靡所不試 且頭首 針灸無數. 戴人診之 急數而有力 風熱之甚也. 此頭角痛. 是三焦相火之經. 乃陽明燥金勝也. 燥金勝 乘肝則肝氣鬱. 肝氣鬱則 氣血壅. 氣血壅則 上下不通. 故燥結於中 尋至失明 以大承氣湯 倍加芒硝. 下泄二十餘行. 次服七宣丸 神功丸 以潤之. 目眇首輕 燥澤結釋而愈.

子和 治一僧 頭熱而痛 且畏明. 以布圍其頂上. 置冰於其中. 日數易之. 此三陽蓄熱故也. 復灼炭火於暖室. 出汗涌吐. 三法併行. 至七日而瘥.

@ 解說 : 張은 세가지의 頭痛 治驗例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科擧를 보러가던 한 사람이 頭痛이 있으면서 한 쪽이 부어서 눈까지 이어져 모습이 항아리 반쪽을 얹어 놓은 것 같았으며 脈이 洪大하였다. 張은 이를 보고 “內經에 面腫者風²⁹⁾이라 하였으니, 이는 風이 陽明經에 乘한 것이고, 陽明經은 氣血俱多하니 風腫에는 마땅히 汗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한 婦人이 5-7年 동안 偏頭痛이 있고 大便燥結 雙目赤腫 眩暈 등의 症狀이 있어 藥과 鍼灸를 무수히 시행하였으나 效果가 없어, 張이 診察해보니 脈이 急數而有力하고 風熱이 심해 頭角痛으로 판단하였다. 頭角痛은 三焦相火之經이고 이어 陽明燥金이 勝해서 온 것인데, 그 病理機轉을 보면 燥金이 勝하면 乘肝하여 肝氣가 鬱하게 되고, 肝氣가 鬱하면 氣血이 壅하여 上下가 不通하여 오게 되는 것이다. 故로 먼저 大承氣湯에 芒硝를 倍加하여 二十餘次例 泄瀉를 시켜 治療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한 승려가 頭熱而痛하면서 빛을 싫어하고 頭頂部를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 같아 얼음을 가까이 하면 症狀이 가벼워 진다고 하였다. 이는 三陽經에 蓄熱한 까닭으로 出汗涌吐 시키며 三法을 竝行하여 治療하였다고 하였다.

이상 세가지 頭痛例을 볼 때, 張은 頭痛의 原因으로 共히 熱을 들고 있으며, 그 治療方法으로 역시 汗吐下

26) 上揭書, p. 242.

27) 긴장이완훈련(relaxation training), 불안요인의 위계작성(hierarchy construction), 탈감작법(desensitization proper)의 3 단계를 거치는 정신요법이다. 예를 들면 뱀을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그보다 덜 무서운 것부터, 가령 뱀을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뱀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이다.

28) 黃義完 의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121, 1987.

29) “頭脈動喘疾欬 曰水. 目眇微腫如臥寢起之狀 曰水. 溺黃赤安臥者 黃疸. 已食如飢者 胃疸. 而腫曰風. 足脛腫曰水. 目黃者曰黃疸.” (素問·平人氣象論篇 第十八)

三法을 提示하고 있다.

<癲狂>

@ 原文 : 一男子 落馬發狂 起則目瞪 狂言不食親疎 棄依而走 罵言湧出 氣力加倍. 三五人 不能執縛. 燒符作 醮無益 牛黃冰麝不靈. 乃求治於戴人 戴人 以車岫 埋之地中 約高二尺許. 上安中等車輪 其輞上髻³⁰一穴. 如作 盆之狀. 縛狂病人於其上. 使之伏臥. 以軟裙襪之. 又令一人於下坐 機一枚 以棒攪之轉 千百遭. 病人吐出 青黃涎沫 一二斗許 繞車輪數匝 其病人曰 我不能任 可解我下 從其言而解之 索涼水與之 冰水飲數升. 狂不作矣.

@ 解說 : 한 男子가 落馬發狂하여 起則目瞪 狂言不食親疎 棄依而走 罵言湧出 氣力加倍 三五人 不能執縛의 症狀이 나타나 여러 가지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가 없었다. 이에 張은 患者를 끈으로 묶어 拘束을 하고, 그 앞에서 몽둥이를 마구 흔들어서 患者가 靑黃色 가래침을 1-2斗 吐하도록 한다음, 患者가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시원한 물을 찾게 되면 그 狂이 풀린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예는 癲狂 중 狂의 症狀으로 重陽者狂³¹, 즉 熱이 盛해서 오는 症狀³²으로, 스스로 氷水를 찾아 數升을 마신다는 것은 熱盛을 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氣逆>

@ 原文 : 婦人勞苦太過. 大便結燥. 欬逆上氣 時喝喝 然有音. 唾嘔鮮血. 以苦劑 解毒湯. 加木香漢防己煎服. 時時啜之. 復以木香檳榔丸. 泄氣逆氣. 一月而安.

@ 解說 : 한 婦人이 勞苦太過하여 大便結燥 欬逆上氣 時喝喝然有音 唾嘔鮮血의 症狀이 나타나, 苦劑인 解毒湯에 加味해서 服用시켜, 泄氣逆氣시킴으로써 治療하였다 고 하였다. 여기서 泄氣逆氣는 吐下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4. 朱丹溪 醫案

朱震亨의 字는 彥修이고 보통 丹溪翁이라 稱한다. 그의 著作으로는 格致餘論, 局方發揮, 傷寒辨疑, 本草演義 補遺, 外科精要新論, 丹溪心法 등이 있다.

<不食>

@ 原文 : 室女 因事忤意 鬱結在脾. 半年不食. 但日食 熟菱³³大棗數枚. 遇喜. 食饅頭 彈子大. 深惡粥飯. 朱意 脾氣實. 非枳實不能散. 以溫膽湯 去竹茹. 數十貼. 而安.

少婦 年十九 因不如意. 逐膈滿 不食累月. 懣甚不能起 坐 巳午間 發熱面赤, 酉戌方退 夜間小便 數而點滴 月經 極少 脈沈澹短小. 重取皆有 此氣不遂 而鬱於胃口 內有 瘀血. 卻因病久. 元氣已虛. 中宮又以 勉強進食 鬱而生痰. 法宜補篤兼施. 以蔘朮各二錢. 茯苓 橘皮各一錢 紅花六分. 食前煎服. 少頃³⁴與神佑丸 減輕粉牽牛爲細丸. 如芝 蕪大 唾津嚥十五丸. 日夜二藥各四服. 次日食進 三日熱退 而愈.

@ 解說 : 한 여자가 忤意를 품어 鬱結在脾하여 半年 不食 但日食熟菱大棗數枚, 遇喜 食饅頭彈子大 深惡粥飯의 症狀이 있었다. 朱는 脾氣가 實한 것으로 생각하여, 枳實이 아니면 풀 수 없으니 溫膽湯에 竹茹를 빼고 服用시켜 治療하였다. 枳實은 性寒無毒 味苦하고, 脾·胃·大腸의 三經에 歸經하며, 破氣行痰, 逐水, 消食, 止痢, 除寒熱結, 治心下痞의 效能을 가지고 있어 脾에 鬱結된 것을 能히 散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竹茹는 性寒無毒 味甘하고 氣味俱清하여 損氣할 수 있어 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⁵.

<厥>

@ 原文 : 一婦 病不知人 稍蘇即號叫 數四而復昏. 朱診之 肝脈弦數且滑. 曰此怒火所爲 蓋得之怒而飲酒也. 詰之 以不得於夫 每夜必引滿 自酌解其懷. 朱治之 以流痰 降火之劑. 而加香附散 肝以分之鬱. 立愈.

@ 解說 : 한 婦人이 病에 걸려 不知人 稍蘇即號叫 數四而復昏의 症狀이 있어, 朱가 診察해 보니 肝脈이 弦數且滑하여 怒火로 인해 發病된 것이라고 診斷하였다. 怒火가 發生된 原因은 이 婦人이 男便을 얻지 못해 매일 밤마다 飲酒로써 懷抱를 풀어 생긴 것이니, 流痰降火시키는 藥에 香附散을 더해 肝의 鬱을 풀어 준다고 하였다. 香附子는 性微寒無毒하고 味甘辛하며, 肝·膽·肺·三焦에 歸經하는 藥으로, 通氣行滯의 效能이 있어

30) 다할 경(器空盡也).

31) “重陽者狂 重陰者癡 脫陽者見鬼 脫陰者目盲”(難經·二十難)

32) “岐伯曰 熱盛於身 故棄衣欲走也”(素問·陽明脈解篇 第三十)

33) 마름 콩(마늘꽃과에 속하는 일년생 수초).

34) 잠깐 동안, 잠깐 사이에.

35) 申佑求 : 申氏本草學, 서울, 蔚文社, p. 374,375,724,725, 1988.

除胸中熱, 解鬱, 治一切氣의 主治作用을 한다³⁶⁾.

<憂>

@ 原文 : 陳狀元弟 因憂 病嗽唾血 面黧色 藥之十日 不效 謂其兄曰 此病得之 失志傷腎 必用喜解乃可愈 即求一足衣食之地處之 於是大喜 即時色退 不藥而愈 由是而言 治病必求其本 雖藥中其病 苟不察 其得病之因 亦不能愈也.

@ 解說 : 한 男子가 憂로 인해 病嗽唾血 面黧色해서 藥을 썼으나 效果가 없어, 그 兄이 보고 말하기를 “이 病은 失志傷腎하여 얻은 것이니 반드시 웃음으로써만 이 治療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肺의 志인 憂情을 心의 志인 喜情으로 治療한다는 것으로, 五行相剋 原理중 火剋金의 理致를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웃과 음식을 땅바닥에 늘어 놓아 患者를 크게 웃기니 비로소 그 色이 退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말하기를 治病必求其本³⁷⁾이니, 모름지기 藥이 그 病에 맞아야 하고, 病을 얻은 原因을 살피지 않으면 역시 治療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怒>

@ 原文 : 婦人 年十九歲 氣實 多怒不發 忽一日大發 叫 而欲厥 蓋痰閉於上 火起於下 上衝故也 與香附末五錢 甘草三錢 川芎七錢 童便薑汁煎 又與青黛³⁸⁾人中白 香附末爲丸 稍愈 後大吐乃安 復以導痰湯 加薑炒 黃連 香附 生薑 下當歸龍膏丸.

鄧顯夫 年六十餘 因大怒 遂昏仆 四肢不用 丹溪曰 怒則火起於肝 手足厥陰二經之氣 閉而不行 故神無知 怒則傷於筋縱 其若不容 故手足不用 乃以連柏瀉 其上逆之火 香附降其肝氣 一二日 神智漸回 再調其氣血 全愈.

@ 解說 : 19세의 婦人이 氣實多怒하지만 病이 발생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大發叫而欲厥의 症狀이 나타났다는데, 이는 痰閉於上 火起於下하여 上衝한 연유라 하였다.

60세의 男子가 大怒로 인해 遂昏仆 四肢不用의 症狀이 나타났다. 丹溪가 이르기를, “怒則火起於肝 手足厥陰二經之氣 閉而不行 故神無知 怒則傷於筋縱 其若不容 故手足不用.”이라 하여 黃連 黃柏으로 上逆된 火를 瀉하고 香附子로 肝氣를 내려 治療한다고 하였다.

위의 例는 모두 怒함에 있어 火가 原因이 된 것으로, 公히 香附子 黃連 黃柏을 君藥으로 삼아 藥을 服用시켰다. 즉 怒情은 肝의 志이고 陽氣가 盛하면 火³⁹⁾가 되니, 香附子로써 肝鬱을 풀고 黃連 黃柏으로써 瀉火시킨다는 意味로 해석된다. 이는 朱가 항상 陽常有餘 陰常不足하므로, 모든 病이 陽이 盛해 나타난다고 主張한 理論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思>

@ 原文 : 一婦 新嫁後 其夫經商 二年不歸 因不食 困臥如癡 無他病 多向裏牀坐 丹溪診之 肝脈弦出寸口 曰此思男子不得 氣結於脾 藥難獨治 得喜可解 不然 令其怒 脾主思 過思則 脾氣結而不食 怒屬肝木 木能剋土 怒則氣升發 而衝開脾氣矣 其父掌其面 呵責之 號泣大怒 至三時許 令慰解之 與藥一服 即索粥食矣 朱曰 思氣雖解 必得喜 庶不再結 乃詐以夫有書 旦夕且歸 後三月 夫果歸而愈.

丹溪曰 一蜀僧出家時 其母在堂 及游浙右經七年 忽一日 念母之心甚切 欲歸無腰纏 徒爾朝夕西望而泣 以是得病 黃瘦倦怠 時僧年二十五歲 太無 羅先生見之 令其隔壁泊宿 每日以牛肉猪肚甘肥等 煮糜爛與之 凡經半月餘 且時以慰諭之言勞之 又許鈔十錠作路費 曰不望報 但欲救汝之命耳 察其形稍甦 脈稍充 與桃仁承氣 一日三貼下之 皆是血塊痰積方止 次日只 與熟菜稀粥將息 又半月 其僧遂如故 又半月有餘 與鈔十錠 遂行.

@ 解說 : 한 婦人이 시집을 간 후, 男便이 장사를 떠나 2年 동안 돌아 오지 않아 因不食 困臥如癡 無他病 多向裏牀坐의 症狀이 나타났다. 丹溪가 診察해보니 肝脈이 弦出寸口하여, 말하기를 “此思男子不得 氣結於脾 藥難獨治 得喜可解 不然 令其怒.”라고 하였다. 이것은 脾主思하니 過思한 즉 脾氣가 結하여 不食하는 것으로, 怒는 肝木에 속하고 木은 土를 剋하니 怒하게 하

36) 上揭書, p. 486.

37) “黃帝曰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素問·陰陽應象大論篇 第五)

38) 쪽으로 만든 검푸른 물감.

39) “水爲陰 火爲陽 陽爲氣 陰爲味.” (素問·陰陽應象大論篇 第五)

면 氣가 升發하여 脾氣를 열어주므로 治療가 되는 것이다(怒勝思).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따귀를 때리고 꾸짖고 하였더니 크게 火가 나서 울고난 다음 좋아졌다. 朱는 다시 이르기를 “思氣雖解 必得喜 庶不再結.”이라 하여, 患者를 기쁘게 해주려고 거짓으로 곧 男便이 돌아온다는 글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25세의 한 승려가 出家후 그 어머니가 보고싶어 매일 서쪽을 바라보고 울어 病이 생겼는데, 黃瘦倦怠의 症狀이 있었다. 太無 羅先生⁴⁰⁾이 이를 보고 여비를 주면서 고향에 다녀올 것을 얘기했더니, 그 말만으로도 승려는 症狀이 좋아졌다. 이 역시 五志相勝에 의한 治療法중 怒勝思(木剋土)의 原理를 治療에 이용한 것이다.

<癩>

· @ 原文 : 婦人 有孕六閱月⁴¹⁾ 發癩 手足揚擲 面紫黑 合眼流涎昏憤 每甦 醫與 鎮靈丹五十貼 時作時止 至產後方自愈. 其夫疑丹毒發 求治脈學弦按瀼. 至骨則沈滯數. 朱意其癩 必於五月復作. 應前舊時. 至則果作. 皆已脾午心時 乃制防風通聖散 減甘草 加桃仁 紅花 或服或吐. 四五劑漸輕 發疥而愈.

婦人 積怒. 嗜酒. 病癩 目上視 揚手擲足 筋牽喉響流涎 定則昏味 腹脹疼. 冲心. 頭至胸大汗 痛與癩間作. 晝夜不息. 此肝有怒邪 因血少而氣獨行. 脾受刑 肺胃間久有酒痰 爲肝氣所侮 鬱而爲痛 酒性喜動出入. 升降入內則痛出外則癩. 乘其入內之時 用竹瀝薑汁 參朮膏等藥 甚多癩痛間作無度 乘痛時 炙大敦 行間 中腕. 間以陳皮芍藥甘草川芎湯. 調膏與竹瀝 服之無數. 又炙大冲然谷巨闕 及大指半甲肉 且言鬼怪怒罵巫者 朱曰 邪乘虛而入理 或有之與前藥 佐以荊瀝除痰 又用秦承祖灸鬼法 哀告我自去. 餘證調理而安. 一少年夏間 因羞怒. 發昏 手搯如狂 時作時止 發則面紫黑 羸丸能動. 左右相過. 醫與金箔鎮心丸 抱龍丸 妙香散 定志丸 不效. 脈微弦. 六至. 輕重有. 朱曰 此內素有濕熱 因激起厥陰相火 又時令相火. 不宜服麝香之藥. 况肝病 先當救脾土. 諸藥多燥血壞脾者. 遂以黃連

爲君. 人蔘爲臣. 酒浸芍藥 和白陳皮爲佐. 生甘草爲使. 生薑一片 煎服 八貼而安.

一女八歲 病癩 遇陰雨及驚則作. 羊鳴吐涎 知其胎受驚也. 但病深不愈. 乃以燒丹丸. 繼以四物湯 入黃連生甘草. 隨時令加減 且令淡味以助藥力. 半年而愈.

· @ 解說 : 婦人이 積怒嗜酒하여 癩疾이 發生했는데, 目上視 揚手擲足 筋牽喉響流涎 定則昏味 腹脹疼 冲心 頭至胸大汗 痛與癩間作 晝夜不息의 症狀이 있었다. 이것은 肝에 怒邪가 있어 血少함으로 인해 氣가 獨行하여 오는 것이다. 脾受刑하고 肺胃間에 오래된 酒痰이 있으면 肝氣所侮하여 鬱한즉 痛이 되고, 酒의 性質은 喜動出入하니 升降入內則痛 出外則癩이 된다고 하였다. 또 鬼神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火를 내고 毒을 하는 症狀이 나타나는 것은, 邪氣가 虛한 틈을 타서 入理한 것이라고 朱가 언급하였다.

한 少年이 여름에 羞怒로 인해 發昏 手搯如狂 時作時止 發則面紫黑 羸丸能動 左右相過의 症狀이 나타나, 醫師들이 金箔鎮心丸 抱龍丸 妙香散 定志丸 등의 藥을 服用시켰으나 效果가 없었다. 朱가 이르기를, “이는 본디 안에 濕熱이 있고 厥陰相火가 急激히 일어남으로 인해 發生하는 것이므로 相火가 있을 때에는 麝香과 같은 藥이 맞지가 않는다.”고 하였다. 역시 肝病으로 과악하고 먼저 脾土를 救할 것을 말하였으니, 이는 肝木이 脾土를 剋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八歲의 女兒가 癩疾病이 있어, 陰雨를 만나면 놀라서 發作을 하고 羊울음 소리를 내며 침을 뱉내니, 이것은 胎受驚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癩疾의 原因은 痰·火·驚의 세가지로 大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痰과 火를 가장 기본적인 要因으로 보고 있다⁴²⁾. 즉 위의 三例에 있어, 첫 번째 예는 痰과 火를, 두 번째 예는 火를, 세 번째 예는 驚을 原因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邪祟>⁴³⁾

· @ 原文 : 少年 暑月 因大勞而渴. 恣飲梅漿. 又連大驚 妄言妄見 病似邪鬼 脈虛弦 而帶沈數. 數爲有熱. 虛弦是

40) 羅知悌(? - 1237) 元代之 醫家. 字는 子敬, 號는 太無. 金代 劉完素의 弟子로 劉氏의 醫學을 繼承한 외에 金代의 名醫 張從政, 李杲 兩家의 家說도 吸收하여 醫學上에 새로운 見解를 수립하였다. 그의 弟子 朱震亨이 이를 더욱 發展시켰다.

41) 열월(閱月): 한 달 이상이 지남.

42) 黃義完 의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410, 1987.

43) 邪祟 : 神禍로 인하여 精神을 잃고 미친 것처럼 되는 병증.

驚。又梅漿停鬱中脘。宜補虛清熱 導去淡滯 乃可遂與 蔘朮陳皮伏苓芩連 並入竹瀝薑汁。旬日未效 乃虛未回 痰未導也。以前藥入荊瀝。又旬日而安。

浦江鄭姓者 年二十餘 秋間大發熱 口渴 妄言妄見 病似邪鬼 七八日後 請朱治之 脈之兩手 洪數而實。視其形肥。面赤帶白。卻喜露筋脈本不實 涼藥所致。此因勞倦成病。與溫補藥自安。曰柴胡七八貼矣 以黃芪附子湯冷與之。飲三貼後 困倦解 微汗而解。脈亦稍軟 繼以黃芪白朮湯。至十日 脈漸收斂而小。又與半月而安。

④ 解說 : 少年이 여름에 일을 많이하고 난 후 渴症이 나 梅實물을 많이 마셨다. 그런 후 갑자기 大驚 妄言妄見 病似邪鬼의 症狀이 나타나고, 脈은 虛弦而帶沈數하였다. 數은 熱이 있다는 것이고 虛弦은 驚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 梅實물이 中脘에 鬱滯되어 있으므로, 枳實 補虛清熱 導去淡(痰)의 誤字로 의심 됨)滯의 治法을 利用한다.

2.5. 羅謙甫 醫案

羅天益의 字는 謙甫이고 李東垣의 弟子이다. 그의 著書로는 內經類編과 衛生寶鑑이 있다.

<鬼疰>44)

④ 原文 : 入國信副使 許可道 到雄州 詣羅診候. 羅診之 脈乍大乍小. 乍長乍短. 此乃氣血不勻. 邪氣傷正. 本官云 在路到邯鄲⁴⁵⁾驛中 夜夢一婦人 著青衣 不見面目 用手向脇下 打了一拳 遂一點痛 往來不止 兼之寒熱 不能食 乃鬼擊也. 羅曰 可服八毒赤丸 本官言 嘗讀明醫錄中 見李子豫⁴⁶⁾八毒赤丸 爲殺鬼杖子 遂與藥三粒 臨臥服 明旦下清水二斗 立效.

又治陳慶玉子 因晝臥于 水仙廟中 夢得一餅食之 心懷憂慮. 心腹痞滿. 飲食減少 約一載餘 漸瘦弱 腹脹如蠱 屢易醫藥 及巫禱皆不效 不得安臥. 羅診之 問其病始末 因思之 此疾既非外感風寒. 又非內傷生冷 將何據而治. 因思李子豫八毒赤丸. 頗覺相當. 遂與五七丸服之 下青黃之涎

斗餘 漸漸氣調 而以別藥理之 數月良愈 此藥有神驗 合時必齊戒沐浴 淨室澄心修合 方以雄黃 礬石 硃砂 附子 炮 藜蘆 牡丹皮 巴豆 各一兩 蜈蚣一條. 八味爲末. 蜜丸如小豆大. 每服 五七丸. 冷水送下無時.

④ 解說 : 어떤 사람이 羅에게 診察을 請해 診脈을 하여보니, 脈이 乍大乍小 乍長乍短하였다. 이는 氣血不勻하여 邪氣傷正했을 때 나타나는 脈이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꿈에 푸른 옷을 입은 한 婦人이 나타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손으로 옆구리를 한 대 맞아 그 맞은 한 점이 아프고 寒熱이 있으면서 飲食을 먹지 못하니, 이는 鬼神이 때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羅가 이 르기를 “八毒赤丸을 服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세 알을 服用케 했더니 泄瀉를 하면서 곧 나왔다.

어느 사람의 아들을 治療하는데, 낮에 사당에 누워 떡 한 조각을 먹는 꿈을 꾸었다. 그 후에 마음에 憂慮하는 것이 생기고 心腹痞滿 飲食減少 約一載餘 漸瘦弱 腹脹如蠱의 症狀이 있어, 여러 醫師와 무당이 나섰으나 效果가 없었다. 羅가 그 病의 始末을 물어보고, 思로 인해 생긴 病이지 外感風寒이나 內傷生冷에 의해 생긴 것은 아니라고 診斷하였다. 그래서 또 八毒赤丸을 생각해 내고 五七丸을 服用시켰더니 青黃色의 가래침을 토해내면서 점차 好轉되었다고 하였다. 八毒赤丸의 處方은 雄黃 礬石 硃砂 附子炮 藜蘆 牡丹皮 巴豆 各一兩 蜈蚣一條로 構成되어 있다.

위의 例에서 鬼疰의 脈象이 乍大乍小 乍長乍短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邪祟에서도 나타나는 脈으로, 두 病의 症狀에 있어서도 類似한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八毒赤丸은 衛生寶鑑에 처음 실린 處方으로 鬼疰를 治療한다고 記錄되어 있으며, 方解는 찾아볼 수 없었다⁴⁷⁾.

<頭痛>

④ 原文 : 柏參謀 六十一歲 初患頭昏悶微痛 醫作傷寒 治 汗後其痛彌篤. 再汗之 不堪其痛矣. 易醫用藥 大都相近 甚至痛不能臥 且惡風寒 不喜飲食. 羅診之 六脈弦細而微. 氣短促. 懶言語. 內經云 春氣者 病在頭. 今年高氣弱. 清氣不能上升頭面. 故昏悶耳. 且此證本無表邪. 汗之過多. 則清陽之氣 愈虧不能上榮 亦不得外固. 所以頭痛楚

44) 鬼疰 : 疰疰의 一種. 鬼邪의 氣가 신체에 유주하여 그 사람이 惡寒發熱하고 夢을 寐중 홀리며 精神이 錯亂한 것이 여러 달 여러 해에 걸쳐 낫지 않고 계속하다가 마침내 죽게 된다.

45) 邯鄲(邯鄲) : 전국시대 조나라의 서울.

46) 晋代의 醫生. 生涯는 未詳.

47) 武進謝 의 : 中國醫學大辭典(1), 臺北, 商務印書館, p. 78, 1982.

而惡風寒。氣短弱而憎飲食。以黃芪一錢五分 人蔘一錢 炙甘草七分 白朮 陳皮 歸芍 各五分。升柴各三分。細辛 川芎 蔓荊子 各二分。名之曰 順氣和中湯。食後進之。一飲而病減 再飲而病卻。

◎ 解說 : 61세의 男子가 처음에는 頭昏悶微痛이 있어 醫師가 傷寒으로 알고 發汗을 시켰으나 痛症이 더욱 심해져 다시 發汗을 시켰더니 감할 수 없을 정도의 痛症이 나타났다. 醫師가 다시 藥을 바꿔 써 봤더니 이번에는 痛症이 너무 심해 눕지도 못하고 또 惡風寒 不喜飲食의 症狀까지 나타났다. 羅가 診脈을 해보니 六脈弦細而微 氣短促하고 말이 느렸다. 內經에 “春氣者 病在頭”⁴⁸⁾라고 하였는데, 氣가 弱하면 清氣가 頭面까지上昇하지 못하는 故로 昏悶하게 된다. 지금 이 症狀은 본디 表邪가 없는 것인데, 汗을 너무 過多하게 내 清陽之氣가 더욱 毀損되어 上榮하지 못하고 역시 皮膚肌肉도 公고히 하지 못하므로 頭痛과 惡風寒이 나타나고 氣短弱하면서 飲食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다. 順氣和中湯을 服用시켰더니 飲食을 먹으면서 症狀이 가벼워 졌다고 하였다. 順氣和中湯은 醫學綱目에 처음 記載되어 있으며, 氣虛頭痛에 升補陽氣하는 效能이 있다⁴⁹⁾.

26. 滑伯仁 醫案

滑壽의 字는 伯仁, 號는 撝寧生이며 주요 著書로는 讀素問鈔, 難經本義, 診家樞要 등이 있다. 일찌기 鍼砭法을 써서 難産 등 多種의 病症을 治療하였고, 經絡理論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해서, 督·任 二脈은 마땅히 十二經과 대등하게 論해야 한다고 보아, 1314년에 十四經發揮을 著作하였다.

<怔忡>

◎ 原文 : 一人 病怔忡善忘 口淡舌燥 多汗 四肢疲軟 發熱 小便白而濁. 衆醫以內傷不足 擬進茸附等藥 未決 脈之虛大而數. 曰是由思慮過度. 厥陰之火爲害耳. 夫君火以名. 相火以位. 相火代君火行事者也. 相火一擾. 能爲百

病. 百端之起. 皆由心生. 越人云憂愁思慮則傷心. 其人平生志大心高. 所謀不遂. 抑鬱積久. 致內傷也. 服補中益氣湯. 硃砂安神丸. 空心進小坎離丸. 月餘而安.

◎ 解說 : 한 사람이 病에 걸려 怔忡善忘 口淡舌燥 多汗 四肢疲軟 發熱 小便白而濁의 症狀이 있어 많은 醫師들이 內傷不足으로 알고 鹿茸 附子 같은 藥을 썼으나 好轉되지 않고, 脈은 虛大而數하였다. 이것은 思慮過度로 인해 發生한 厥陰之火가 害를 입힌 것이다. 厥陰之火는 相火이며, 君火以名 相火以位로 相火는 君火를 대신해서 일을 行한다. 相火가 한 번 搖動하면, 萬病이 생기고 모두 心으로 부터 發病한다. 扁鵲이 말하기를, “憂愁思慮하면 傷心하니, 사람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抑鬱積久하여 內傷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는 西洋醫學에서, ‘精神的인 原因으로 發生되는 身體化된 症狀’으로 表現되는 精神身體障礙(psychosomatic disorders)의 概念과 類似한 것으로 생각된다⁵⁰⁾.

<癩>

◎ 原文 : 一僧 病發狂謔語 視人皆爲鬼 診其脈彙彙 如意苴子. 且喘且搏. 曰此得之陽明胃實. 素問云 陽明主肉. 其經血氣並盛. 甚則棄衣升高. 踰垣妄言. 遂以三化湯. 三四下. 復進以火劑乃愈.

◎ 解說 : 한 승려가 發狂謔語 視人皆爲鬼의 症狀이 있어 診脈을 하여보니 彙彙如意苴子 且喘且搏의 脈이 나타났다. 이것은 陽明胃實한 것으로, 素問에 이르기를 陽明主肉⁵¹⁾이라 하여 陽明經은 血氣並盛하니 甚하면 棄衣升高 踰垣妄言의 症狀이 나타나며, 따라서 처음에는 下法을 施行하도록 하였다. 脈象이 彙彙如意苴子한 것은 脈이 연달아 계속온다는 뜻으로 長脈의 다른 表現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長脈은 邪氣가 有餘한 病에 나타나는 脈象으로 熱이 甚하여 形成되기도 하고, 熱이 陽明經에 막혀있으면 陽明經은 多氣多血하므로 熱勢도 甚해 脈象도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 長한

48) “東風生於春 病在肝俞 在頸項, 南風生於夏 病在心俞 在胸脇, 西風生於秋 病在肺俞 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俞 在腰股, 中央爲土 病在脾俞 在脊. 故春氣者病在頭, 夏氣者病在臑, 秋氣者病在肩背, 冬氣者病在四肢.” (素問·金匱真言論篇 第四)
49) 黃義完 외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886, 1987.

50) 上揭書, p. 617.
51) “陽明主肉 其脈血氣盛 邪客之則熱 熱甚則惡火.” (素問·陽明脈解篇 第三十)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於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 . .” (素問·熱論篇 第三十一)

형태로 나타나며⁵²⁾, 瀉熱의 방법으로 下法을 施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明代

3.1. 明代의 政治·社會의 背景

明은 1368年 朱元璋에 의해 南京에 도읍을 하여 建國되었다. 明은 唐 이후 中國의 自治의인 統一時代로, 宋代에 西北과 東北方面의 인지 못한 燕雲, 關隴의 땅을 모두 回復하였을 뿐 아니라 北方 邊境밖의 일부 험한 지역들도 모두 그 판도 안에 넣어 2백여년 동안이나 維持하였다. 明太祖인 朱元璋은 中國의 傳統의인 文化를 復興하여 社會에서 胡風을 일소하였을 뿐 아니라, 六諭를 發表하여 배우지 못한 民衆을 教化시키려고 하였다. 六諭는 일상생활의 戒規로 父母에게 孝順하고, 年長者를 尊敬하고, 마을이 화목하고, 子孫들을 가르치고, 各各 生理에 편안하고, 非違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太祖가 죽은지 얼마 되지 않아, 太祖의 4째 아들인 燕王 棣는 靖難의 變을 일으켜 2代 惠帝를 閉하고 永樂 19年(1403)에 成祖로 즉위하여 北京으로 遷都하였다. 太祖는 律令에 있어서도 완비된 大明會典을 만들었는데, 이는 이후 淸에서도 繼承되었다. 明은 成祖 永樂帝를 맞이하여 크게 發展하였는데, 그의 공적은 韃靼(Tatar), 互刺(oirat)의 정벌과 安南을 토벌하고, 西南蠻族을 평정한 일이며, 倭寇를 막고, 西洋과 교통을 이루어 놓은 일이다. 하지만 成祖는 宦官을 寵愛하여 宦官 政治를 조성하며, 마침내 明朝가 멸망하도록 이끌었다.

3.2. 明代醫學의 學術의 特徵

明代의 醫學은 각 方面에서 모두 비교적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발전의 추세는 宋·金·元에 발달한 醫學理論을 臨床을 통하여 綜合折衷하여 理論이 다른 各派가 점차 통일되어, 하나의 비교적 系統的이고 완비된 이론체계를 이루고, 아울러 이러한 이론체계를 臨床과 結付시켜, 구체적으로 臨床에 응용되게 하는 것이었다.

金元醫學을 이어받은 明代에 各派間의 鬭爭이 비교

적 極烈하였는데, 이중 중요한 것으로는 金元學派의 論爭에서 발전된 溫補派와 補陰派 間의 論爭이 있었으며, 命門과 相火에 관한 論爭, 三焦에 관한 論爭도 있었으며, 內經과 傷寒論의 註解와 整理에 대한 論爭 등이 各家의 著作中에 항상 反映되었다.

臨床醫學方面에서는 診斷方法上에서 뿐만 아니라, 治療와 豫防에서도 모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그중 특히 問診과 舌診이 중시되었고 脈證合參이 強調되었다. 그리고 種痘術이 發明되고 急性傳染病에 대한 認識이 달라지고 새로운 病源說이 나왔으며 處方用藥 方面에도 많은 進歩가 있었다.

醫學理論方面에 있어서는 命門 相火學說의 발달로, 生理 病理學說이 매우 豊富해졌고, 臨床理論도 辨證論治를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3.3. 胡慎柔 醫案

醫僧으로 法名은 釋住想이며, 經史와 儒學에 博通하였다. 癆病을 앓아 查了뎌에게 治療를 받고 醫學을 배웠다. 查氏는 周慎齋에게 그를 천거하여 계속 醫學을 배우게 하였다.

<頭痛例>

@ 原文 : 一老婦患 頭痛二月. 諸治罔效. 余治以通經絡 和氣血之劑. 十餘貼. 晚上吐血 二碗許. 其家惶恐奔告. 余謂其症明日當愈. 已而果然.

一貴介年三旬. 先因齒痛. 用石膏三錢煎服. 頃即滿頭皆腫痛. 牙根上腺腫勢尤甚. 俟天明⁵³⁾稍退. 蓋得陽氣故也. 診之. 右關細澁. 左關洪. 左尺亦澁. 余謂須納氣下達. 方得脈和. 定方名羌活散火湯. 羌活酒炒五分 防風三分 酒連一分 酒芩二分 白茯苓一錢 人蔘二錢 甘草五分 半夏一錢 破故紙一錢 枸杞子一錢. 二劑. 其細澁脈即粗大. 是陽氣下行矣. 頭痛稍止. 可見前頭痛 是下焦無陽 陰火上衝. 服之八劑. 頭痛全止. 齒根腫猶未退. 脈則益和. 余曰將愈矣. 此陽氣已至恙所. 果四五日出膿 少許而瘳.

@ 解說 : 한 老婦인이 2個月 동안 頭痛이 있었으나 모든 治療가 效果가 없었다. 이것은 通經絡하고 和氣血시키는 藥으로 治療를 해야하므로, 十餘貼을 주었더니

52) 朴昊 :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p. 222, 1996.

53) 천명(天明) : 새벽.

2사발 정도 吐血을 하고 나서 좋아졌다.

30세의 한 貴人이 먼저 齒痛이 있어 石膏三錢을煎服했더니 오히려 머리가 그득하면서 腫痛하고, 이뿌리에 누린내가 나며 심하게 부어 올랐다. 새벽이 되니까 조금 좋아졌는데, 이는 새벽의 陽氣를 얻었기 때문이다. 診脈을 해보니 右關細澁 左關洪 左尺亦澁하여, 納氣下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羌活散火湯을 服用시켰다. 二劑 服用後 細澁脈이 粗大해졌는데, 바로 陽氣가 下行한 것이니 頭痛이 점점 가라앉았다. 하지만 다시 前頭痛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下焦無陽하여 陰火가 上衝해서 된 것으로, 八劑를 服用시켰더니 頭痛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뿌리의 腫痛도 사라졌다.

위의 예에서, 첫 번째는 火氣上衝에 의해 誘發된 頭痛에 있어 瀉火시키는 방법으로 吐法을 이용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左關脈이 洪한 것으로 보아 肝經의 熱⁵⁴⁾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4. 張景岳 醫案

張介賓의 字는 會卿이고 號는 景岳, 別號는 通一子라 하였으며, 著書로는 類經, 類經圖翼, 附翼, 景岳全書 등이 있다. 景岳은 劉河間의 諸病皆屬於火의 學說과 李東垣의 相火爲元氣之賊의 說을 모두 攻擊하여, 오히려 相火爲元氣之本이라고 主張하였다. 또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說에 反對하여, 陽常不足 陰常有餘하므로 恒常 補陽을 爲主로 治療해야 한다고 하였다.

<詐病>⁵⁵⁾

① 原文 : 景岳曰 予向同數友 遊寓榆關客邸. 內一友素耽風月. 忽於仲冬一日夜 叩予戶. 張皇求救云. 所狎⁵⁶⁾之妓. 忽得急證. 勢在垂危. 倘遭其厄. 禍不可解. 予往視之. 見其口吐白沫. 僵仆於地. 以手摸之. 則口鼻四肢俱冷. 氣息如絕. 陡見其狀. 殊爲驚駭. 因挽手診之. 則氣口和平. 脈不應證. 予意其脈和如此. 而何以證危如是. 沈思久之. 豈卽仲景所云 詐病耶. 復診其脈. 安然如故. 遂大聲於病妓之旁曰. 此病危矣. 須用極大艾團. 連灸眉心人中小腹數處方可活. 惜花容損壞耳. 余寓有艾. 宜速取來灸之. 然

火灸尙遲. 姑先與一藥. 使其嚥之後. 倘有聲息. 則生意已復. 卽不灸亦可. 若口不能嚥 或嚥後不甦. 當速灸可也. 病妓聞余之言. 竊已驚怖. 惟恐大艾著身. 藥到卽嚥. 嚥後少頃. 卽哼聲出而 徐動徐起矣. 次日問之. 乃知爲吃醋而發也.

景岳在都. 有金吾畜二妾. 其一則燕姬也. 有母隨之. 一日二妾相競. 燕姬理屈. 若母助其跳跟. 遂致氣厥若死. 乃令一婢抱持而坐. 自暮達晨. 絕無甦意. 延治. 初入室. 見其肉厚色黑. 面青目瞑. 手撤息微. 診其脈則伏渺若脫. 亦意其危也. 而治法難施. 溫補則慮其氣逆未散. 開導則慮其脈絕難勝. 躊躇間. 乃請復診. 則以十字交叉抱腹. 仰坦婢懷. 因疑其前已撒手. 今能反手. 豈他人之所爲乎. 及診之. 似有嫌拒意. 拽之不能動. 乃出其不意猛拽之. 則頓脫有聲. 力強且動. 此非欲脫眞病明矣. 因思其脈若此. 或以肉厚氣滯. 此北人稟賦⁵⁷⁾多有之. 或以兩腋緊夾. 此奸人狡詐⁵⁸⁾亦有之也. 若面青色微. 則怒氣使然. 自不足怪. 識見既定. 因聲言其危. 使聞灸法. 遂先投一劑. 下咽卽活. 金吾因詢其病眞耶假耶. 若假何以竟夕⁵⁹⁾如是. 且形症畢肖. 藥眞何以藥下卽瘳. 抑果藥之元秘乎. 曰元秘乃在言耳. 不過借藥爲名. 但使彼懼. 病卽去矣. 經曰憂可勝怒. 正此謂也. 然其狡詐一至於此. 使非再診. 亦幾爲所誑. 可不審哉.

② 解説 : 景岳이 여러 친구들과 여관에 머무는데, 그 중 한 명이 본디 風月에 耽溺하는 친구가 있어, 어느 한 겨울 저녁에 방문을 급히 두드리며 張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자신이 희롱하던 기생이 홀연히 急證을 얻어 病勢가 危殆롭다고 하여, 往診을 해보니 口吐白沫 僵仆於地 以手摸之 則口鼻四肢俱冷 氣息如絶의 症狀이 있어, 놀라서 된 病으로 생각하고 손을 끌어 診脈을 해보니 脈이 和平하였다. 脈이 症狀에 應하지 않아, 脈이 和平한데 症狀은 어찌 그토록 危殆로운가 싶어 깊이 생각해 보니, 仲景이 詐病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 다시 脈을 잡아보았는데 여전히 安定돼 있었다. 그래서 그 기생이 듣도록 큰 소리로 “이 病은 아주 危險하니 빨리 큰 땀속을 數處에 놓아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땀을 뜨기 전에 藥을 服用시켰더니 조금씩 좋아졌다. 이는 病은 기생이 땀 뜨는 것을 두려워해 거짓

54) 上揭書, p. 276.

55) 詐病, 거짓병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56) 희롱할 압.

57) 품부(稟賦) : 품성, 타고난 체질.

58) 교사(狡詐) : 교활하여 남을 잘 속임.

59) 경석(竟夕) : 밤새도록.

으로 나타냈던 症狀을 그만 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두 명의 첩을 두고 있었는데, 한 첩의 이름이 燕姬이고 어머니가 따라와 있었다. 어느 날 두 첩이 싸움을 해 燕姬가 저서 도망가는 것을 그 어머니가 도와주다 갑자기 쓰러져 죽은 것 처럼 보였다. 여중으로 하여금 안아 일으켜 앉도록 하였는데, 해질녘 부터 새벽까지 回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治療를 청해왔다. 처음 방에 들어가서 보니, 肉厚色黑 面靑目瞑 手撒息微 하고 脈은 伏渺若脫하여 역시 危急한 症狀으로 생각되어져, 治法을 정하기가 어려웠다. 溫補한 즉 氣逆未散할 것이 염려되고, 開導한 즉 脈이 絶하여 治療하기 어려울까 염려되었다. 머뭇거리기 사이 다시 診脈을 하여보려고 하니 양 손으로 배를 감싸, 이전에 撒手한 것을 풀고 지금 손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疑心을 가지게 되었다. 診察에 拒否하려는 듯한 意思가 보였으며, 손을 끌려고 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힘을 쓰다 갑자기 소리가 났고, 힘이 매우 세고 강했다. 이로써 이 症狀이 欲脫眞病이 아님을 確信하고, 脈과 症狀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肉厚氣滯한 것은 北人의 타고난 體質 때문이고, 兩腋緊夾한 것은 간사한 사람이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이는 때문이고, 面靑色微한 것은 怒氣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治療를 함에, 危殆롭다고 하면서 灸法을 施行한다는 말을 듣게 한 후, 먼저 藥을 投與하였더니 바로 깨어났다. 주인이 張에게 病의 眞僞와 藥에 治療의 비밀이 있는가를 물었다. 張이 말하기를 治療의 비밀은 말에 있는 것이고 藥은 이름만을 빌린 것에 불과하며, 단지 두려운 마음에 病이 사라진 것이라고 하였다. 內經에 이르기를, “憂可勝怒”라 하였는데, 바로 이를 이름이고,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이는 것이 이에 이르면 다시 診察할 것도 없이 역시 속여버리면 된다.

위의 治療法은 患者를 속여서 治療하는 誑治療法으로, 西洋醫學의 支持精神療法(supportive psychotherapy)중 暗示(suggestion)⁶⁰⁾에 의한 治療方法과 類似하다. 暗示療法은 治療者가 간접적으로 던지시 患者에게 그의 괴로운 症狀이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나 信念이 들도록 해주는 治療方法이다. 이 때 治療者는 자신만만

하고 권위있고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바 患者는 그를 믿고 존경하는 까닭에 論理보다는 感情的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 暗示는 어린이, 덜 지적인 사람, 미숙하고 히스테리적 성격을 지닌 사람, 事故 뒤에 오는 不安狀態, 최근 發生하여 뿌리가 아직 깊지 않은 轉換神經症의 경우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며, 위의 두 예는 최근 發生한 轉換神經症의 예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3.5. 王肯堂 醫案

王肯堂의 字는 宇泰이고 號는 損庵, 自號는 念西居士이며 著書로는 六科准繩, 醫論, 孕產全書 등이 있다.

<狐惑>⁶¹⁾

@ 原文 : 附準繩載一婦人. 狐惑聲啞. 多眠目不閉. 惡聞食臭 不省人事 半月後 又手足拘強 脈數而微細. 先與竹瀝薑汁一盞. 服之 忽胸中有汗 腸鳴即目閉不省人事 遂用 人參 歸陳 入竹瀝薑汁. 飲之 五六貼而愈.

@ 解說 : 準繩에 한 婦人에 대한 얘기가 실려있는데, 그 婦人이 疑心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병어리가 되어 多眠目不閉 惡聞食臭 不省人事 半月後 又手足拘強의 症狀이 나타나고, 脈은 數而微細하였다. 먼저 竹瀝薑汁 一盞을 服用시켰더니 갑자기 胸中有汗하면서 腸鳴한 즉 目閉不省人事하여, 다시 人參 白朮 當歸 陳皮에 竹瀝薑汁을 넣어 五六貼을 사용했더니 나왔다.

西洋醫學의인 觀點에서 볼 때 위의 症狀은 히스테리 轉換型의 예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⁶²⁾, 그 治療에 있어 竹瀝은 燥熱의 痰을 下行케 하고, 生薑汁과 和하여 有形의 痰을 行하게 하는 效能이 있다⁶³⁾. 즉 脈이 數한 것은 熱痰으로, 微細한 것은 氣虛로 인해 나타나는 脈이므로 위의 藥物을 사용해서 治療하는 것이다.

3.6. 汪石山 醫案

汪機의 字는 省之이고 號는 石山居士이며, 著書로는

61) 의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속여 迷惑하게 함. 습사가 침입하거나 열독이 물려서 생긴다.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늑거나 일어나거나 늘 불안하며 의심을 잘한다.

62) 黃義完 외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p. 555, 1987.

63)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露文社, p. 374, 1988.

60) 李定均 : 精神醫學, 서울, 一潮閣, p. 620,621, 1987.

外科理例, 醫學原理, 石山醫案 등이 있다. 汪의 醫學思想은 대부분 丹溪를 追從했으나, 결코 朱에 局限되지는 않고 매우 넓은 범위를 섭렵하였다.

<氣衝>

@ 原文 : 蕭師訓 年踰五十 形肥色紫 氣從臍下 逆冲而上 睡臥不安 飲食少 精神倦 汪診之 脈皆浮濡而緩 曰氣虛也 問曰 丹溪云 氣從臍下起者 陰火也 何謂氣虛 汪曰 難執定論 丹溪又云 肥人氣虛 脈緩亦氣虛 今據形與脈 當作氣虛論治 遂以參芪爲君 白朮白芍爲臣 歸身熟地爲佐 黃柏甘陳爲使 煎服十餘貼 稍安 彼以胸膈不利 陳皮加作七分 氣冲上 仍守前方 月餘而愈.

@ 解說 : 50세의 男子가 形肥色紫 氣從臍下逆冲而上 睡臥不安 飲食少 精神倦한 症狀이 있어, 汪이 診脈해 보니 皆浮濡而緩하여 氣虛로 인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丹溪는 氣從臍下起者는 陰火라고 했는데, 왜 氣虛라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汪이 “丹溪가 또 이 르기를 肥人은 氣虛하고 脈이 緩한 것도 역시 氣虛이니, 지금 그 形과 脈을 들어 당연히 氣虛로 辨證해 治療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例는 丹溪의 二說을 辨證에 應用한 것이다.

<不寐>

@ 原文 : 石山治一女 年十五 病心悸 常若有人捕之 欲避而無所 其母抱之於懷 數婢護之於外 猶恐恐然 不能安寐 醫者以爲病心 用安神丸 鎮心丸 四物湯 不效 汪診之 脈皆細弱而緩 曰其膽病也 用溫膽湯 服之而安.

@ 解說 : 汪이 15세의 女子를 治療하는데, 症狀이 心悸가 있어 항상 누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숨어 피하려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애처로운 마음에 여러명의 노비로 하여금 밖을 지키도록 하였지만, 오히려 더 무서워해 편히 눕지를 못하였다. 여러 의사가 心病으로 알고 治療했으나 效果가 없었고, 汪이 診脈을 해보니 皆細弱而緩하여 膽病으로 診斷하고, 溫膽湯을 服用시키니 安定되었다고 하였다.

이 例도 역시 心悸, 恐怖 등의 症狀에 의해 精神의 緊張이 유지됨으로써 不寐의 症狀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西洋醫學의 精神身體障(psychosomatic disorder s)⁶⁴⁾의 範疇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癩>

@ 原文 : 一女 六歲 病左手不能舉動 三年矣 後復病癩 初用人蔘半夏 或效或否 汪診左脈浮洪 右脈頰和 曰痰熱也 令以帛勒 肚取茶子 去殼三錢 按碎以滾湯 一碗 濾取汁 隔宿勿食 早晨溫服 吐痰三碗許 手能舉動 癩亦不作.

一人 年三十餘 久病癩證 多發於晨盥⁶⁵⁾時 或見如黃狗走前 則昏瞶仆地 手足癩癢 不省人事 良久乃甦 或作痰火治 而用芩連二陳湯 或作風痰治 而用全蝎僵蠶壽星丸 或作痰迷心竅 而用金箔鎮心丸 皆不中病 汪診之 脈皆緩弱頰弦 曰此木火乘土之病也 夫早晨陽分而 狗陽物 黃土色胃屬陽土 虛爲木火所乘矣 經曰 諸脈皆屬於目 故目擊異物而病作矣 理宜實胃瀉肝 而火自息 越人云 泄其肝者 緩其中 遂以參芪 歸朮 陳皮 神麩 茯苓 黃芩 麥冬 荊芥穗 煎服十餘貼 病減 再服 月餘而安.

@ 解說 : 30여세의 사람이 오랫동안 癩證이 있어 새벽녘에 多發하였고, 或見如黃狗走前 則昏瞶仆地 手足癩癢 不省人事 良久乃甦의 症狀이 있었다. 汪이 診脈을 해보니 皆緩弱하면서 弦脈에 치우쳐 있어, 이것은 木火乘土하여 된 病이라고 생각하였다. 早晨時는 陽分이고, 狗陽物, 黃土色, 胃가 모두 陽에 屬하며, 土가 虛하면 木火가 이를 乘하는 바가 된다. 理致에 따라 實胃瀉肝하면 火가 스스로 그치게 된다.

脈緩弱하면 吞酸과 食不下症이 생긴다고 하였는데, 緩은 胃氣가 有餘한 脈이고 弱은 陽氣가 不足한 脈이니, 胃가 消化시키려 하나 陽氣가 運行되지 못하므로 트림을 하면서 吞酸을 하고 飲食이 갑자기 消化되지 않고 胸膈에 막혀 있게 된다고 하였으며, 弦脈은 肝의 本脈으로⁶⁶⁾, 汪은 이를 木剋土의 原理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姚⁶⁷⁾는 本 例의 醫案에서 癩狂과 癩의 虛實을 구별하였는데, 癩狂은 實證이 80-90%이고 癩은 虛證이 80-90%를 차지한다고 言及하였다.

3.7. 李時珍 醫案

李時珍의 字는 東璧이고 晚號는 瀨湖山人이며, 26年

64) 李丙允 : 精神醫學辭典, 서울, 一潮閣, p. 243, 1990.

65) 대야 관, 옛을 관.

66) 朴晙 :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p. 272, 1996.

67) 姚若琴 : 宋元明清名醫類案(1) 중 汪石山醫案 p. 26.

에 걸쳐 本草綱目を 著述하였다. 本草綱目の 意義는 16世紀 以前의 本草學을 일차적으로 總結한 것에 들 수 있다.

<火證>

@ 原文 : 時珍曰 二人所病. 皆伏火之證. 素問所謂 諸禁鼓標 皆屬於火也. 治法火鬱則發之. 而二公 乃於冬月平旦⁶⁸⁾. 澆以冷水者. 冬至後陽氣在內也. 平亦亦陽氣方盛時也. 折之以寒 使熱氣鬱 遏至極激 發而汗解. 乃物不極不反. 是亦發之之意. 素問所謂 正者正治. 反者反治. 逆而從之. 從而逆之. 疎通道路. 令氣調和者也. 春月則陽氣已洩 夏秋則陰氣在內 故必於十一月至 後乃可行之. 二公之醫. 可謂神矣.

@ 解說 : 時珍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病에 걸렸는데 모두 伏火之證이었다. 素問에 이르기를 “諸禁鼓標 皆屬於火也”라 하여 火鬱의 治法은 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을 겨울 새벽에 冷水를 주어 治療하는데, 이는 冬至後에 陽氣在內하기 때문이다. 陽氣가 바야흐로 盛한 時期에는 寒으로 熱氣가 鬱한 것을 治療하고 汗을 내면 풀리게 된다. 素問에 이르기를, “正者正治 反者反治 逆而從之 從而逆之 疎通道路”⁶⁹⁾라 하였는데, 氣를 調和롭게 한다는 것이다. 春月에는 陽氣가 已洩하고, 夏秋에는 陰氣가 內에 있는 故로 반드시 이 治法은 11月 以後에 行하는 것이 좋다.

3.8. 孫東宿 醫案

孫一奎의 字는 文垣이고 號는 東宿이며 生生子라고도 했다. 著書로는 赤水玄珠 醫旨緒餘 痘疹心印 孫氏醫案 등이 있다.

<頭痛>

@ 原文 : 蔡樂門令眷 頭痛如破 髮根稍動 則痛延滿頭 暈倒不省人事 踰半時乃甦 徧身亦作疼 胸膈飽悶 飲湯水 停膈間不下 先一日吐清水數次 蛔蟲三條 原爲怒起. 今或惡風 或惡熱 口或渴 或不渴 大便秘 脈則六部皆滑大有力. 孫曰此痰厥頭痛證也. 先以藿香正氣散止其吐. 繼以牛

黃丸 黑虎丹. 清其人事. 頭仍疼甚. 又以天麻藁本各三錢. 半夏二錢. 麻黃薄荷白芷陳皮生薑葱白煎服. 得少汗而頭痛 少止 至晚再服之 五更痛止大半 而人事未全清 孫謂 此中焦痰盛 非下不可 乃用半夏五錢 巴霜一分 麵糊丸. 每服三十九. 生薑湯送下. 午後大便行三次. 皆稠粘痰積也. 由此飲食少進 餘證差可 惟徧身仍略疼 改用二陳湯 加前胡 藁本 薄荷 黃芩 石膏 枳殼 石菖蒲. 調理而安.

@ 解說 : 한 사람이 頭痛如破로 髮根稍動 則痛延滿頭 暈倒 不省人事 踰半時乃甦 徧身亦作疼 胸膈飽悶의 症狀이 있어 끓인 물을 마셔도 가슴에 停滯되어 내려가지 않을었다. 먼저 清水를 數次禮 吐하게 하자 蛔蟲 세 마리가 나왔는데, 그 原因은 怒가 일어난 때문이다. 지금의 症狀은 或惡風 或惡熱 口或渴 或不渴 大便秘하고 脈은 六部가 皆滑大有力하여, 孫이 말하기를 痰厥頭痛의 症狀이라고 하였다. 滑脈은 氣血의 實證과 痰飲의 停滯를 주재하고 있어, 이로써 痰厥頭痛을 辨證한 것으로 생각된다.

3.9. 周慎齋 醫案

周之幹의 號는 慎齋이고, 著書로는 周慎齋三書, 脈法解 등이 있다. 처음에 查了품을 따라다녔고, 후에 薛己에게 지도를 받았다.

<火證>

@ 原文 : 一人 七月病 上辰昏暈 下午不言. 昏睡一日不醒. 人叫不應 身涼不食 不寒不熱 皆曰陰證. 議用理中四逆. 周慎齋診其脈 沈小帶伏. 曰內有火邪也. 故小便一二日不解 延至夜不醒 周曰此眞火也. 其妻曰 前日房事如何是火. 周曰 夜有房事 內虛又勞 熱甚. 夫乾熱從虛入. 則陰氣將絕. 以水救之 則可取冷水一桶 飲至五碗 病者曰渴. 飲至七碗. 大汗如雨 病者曰餓. 吃粥一碗 用補中益氣湯 加炮薑 澤瀉. 溫中瀉冷水. 而愈.

一婦 五月間 身涼自言內熱 水瀉二月 一日數次 小水絶無. 大便俱水 自言上熱極 下凍死 腰腿足俱冷 腹痛如冰 或一時發熱 不欲近衣. 或一時怕冷 徧身盡然 夜至天明 面目紅腫. 藥之不愈 六脈洪大 此伏火也. 火性炎上 故上熱下冷耳. 用四物湯 加柴胡 葛根 升麻 甘草 梔子 黃芩 黃柏 二貼 小水行 瀉止. 復發牙疼 三日不愈 用黃芪建中湯 加附子. 一服.

68) 평旦(平旦) : 새벽.

69) “帝曰 善. 氣調而得者何如. 岐伯曰 逆之 從之 逆而從之 從而逆之 疎氣令調則其道也.” (素問·至真要大論篇 第七十四)

一人 知飽不知飢 胸膈飽悶 脾虛也. 常起 火喉痛 口唇生瘡 牙根作脹 齒縫出血. 火在上 上盛也. 骨痠痛 不能久立. 雞鳴精自遺 下虛也. 上盛下虛 所謂陽精下降 其人天. 名曰下消 善治不若善養. 用補中益氣湯 以散上焦之火. 六味湯 以實下焦之腎. 所以斂火歸本也.

一婦 六月卒死 遍體俱冷 無汗 六脈俱伏. 三日不醒 但氣未絕耳. 衆用四逆理中 亦不能納. 四日後 慎齋診之 仍無脈. 念人一二日 無脈立死. 今三日不死 此脈伏也. 熱極似寒耳. 用水濕青布放身上. 一時身熱 遂飲冷水 五六碗 反言渴. 又一碗 大汗出 後用補中益氣 加黃柏 十貼愈.

◎ 解說 : 한 사람이 七月에 病이 들어, 上辰에는 昏暈하고 下午에는 不言하며 하룻동안 昏睡하여 깨어나지 못했다. 불러도 應하지 않고 身涼不食하며 不寒不熱하니, 모두들 이것은 陰證이니 理中四逆湯을 써야한다고 하였다. 周가 診脈을 해보니 沈小帶伏하여 이르기를 火邪라 하고, 故로 小便이 一二日不解하면서 밤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을 것인데, 바로 이것이 眞火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 婦人이 前日에 房事를 하였는데 왜 火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周가 대답하기를, 밤에 房事를 해서 內虛한데 또 힘을 써 熱이 甚해진 것이니, 乾熱이 虛한 틈을 타 入하게 되면 陰氣가 장차 絶할 것이라 하면서, 冷水를 마시도록 하였다.

한 婦人이 五個月동안 身涼自言內熱 水瀉二月 一日數次 小水絶無 大便俱水 自言上熱極 下凍死 腰腿足俱冷 腹痛如冰 或一時發熱 不欲近衣 或一時怕冷 遍身盡然 夜至天明 面目紅腫의 症狀이 있어 藥을 써도 낫지 않고 六脈이 洪大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伏火인 것이다. 火性炎上하는 까닭에 上熱下冷하게 된다.

한 사람이 知飽不知飢 胸膈飽悶의 症狀이 있는데 이는 脾虛한 것이다. 平常시에 또 火喉痛 口唇生瘡 牙根作脹 齒縫出血의 症狀이 나타나는데 火가 위에 있어 上盛한 때문이다. 骨痠痛不能久立 雞鳴精自遺하는 것은 下虛한 탓이다. 補中益氣湯으로 上焦의 火를 흠어 내고, 六味湯으로 下焦의 腎을 튼튼하게 하면, 火가 收斂되어 그 根本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한 婦人이 六月에, 죽은 사람 처럼 遍體俱冷 無汗 六脈俱伏하면서 三日동안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氣가 아직 끊어지지 않아 많은 醫師들이 四逆理中湯을 썼으나 效果가 없고, 四日後에 慎齋가 診脈을 해보았으나

잡히는게 없고 단지 脈이 伏한 것이니 이는 熱極似寒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乾은 수건으로 몸을 덮어줬더니, 一時에 身熱이 나면서 冷水 五六碗을 마시고도 渴症이 난다고 해, 한 대접을 더 마시고 大汗出한 後에 補中益氣湯에 黃柏을 더해 十貼을 써서 나았다.

위의 例는 모두 眞假同異의 例로, 모두 本質은 陽熱 內鬱한데 겉으로 나타나는 症狀은 惡寒, 肢冷 등의 陰寒 症狀으로 眞熱假寒한 것이니⁷⁰⁾, 마땅히 그 本에 따라 治療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10. 呂滄洲 醫案

呂復의 字는 元膺이고 晩年에 自號를 滄洲翁이라 하였으며, 著書로는 內經或問, 靈樞經脈箋, 五色診奇眩, 切脈樞要 등이 있다. 呂의 主要業績은 古代의 醫籍과 醫家에 대해서 考訂하고 評述한 것이다.

<邪祟>

◎ 原文 : 一女 在室病不月 諸醫療 皆不得其狀 視之復大如娠 求其色脈卽 怪語之曰 汝病非有異夢. 則鬼靈所憑耳. 女不答 趨入臥內. 密語其侍媪曰 我去夏追涼廟廡下 薄暮過木神必動 是夕夢一男子 如暮間所見者. 卽我寢親狎 由是感病 我慚⁷¹⁾ 祓⁷²⁾ 不敢以告人 醫言是也 予以告呂 呂曰女面 色乍赤乍白者. 愧也. 脈乍大乍小者. 祟也. 病因與色脈符. 雖劇無苦. 乃以桃仁煎. 下血類豚肝者六七枚 俱有驗如魚目病已.

◎ 解說 : 한 女人이 방에서 病을 앓아 많은 醫師들이 治療를 하였으나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 배를 보면 妊娠한 것 같았고, 色脈을 본 즉 怪狀한 말을 하여 꼭 鬼神에 씌어진 것 같았다. 女子가 말 없이 방안으로 성큼 걸어들어가 그 어미에게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여름에 시원한 사당의 처마아래에 갔었는데 어두워져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본 적이 있는 듯한 男子가 꿈속에 나타났는데, 나는 친숙하게 같이 누웠고 그로 인해 病이 났으니, 부끄러워 감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呂가 말하기를, “女人의 面色이 乍赤乍白한 것은 愧요, 脈이 乍大乍小한 것은 祟나

70) 金完熙 외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 115, 1990.

71) 부끄러워할 참.

72) 불힐 란.

라.”하여 桃仁煎과 돼지간 六七枚로 下血시키니 나왔다고 하였다.

위의 예는 鬼胎에 대한 것으로 假孕을 말하는 것이며, 氣胎·血胎·痰胎로 구분한다. 氣胎는 대부분이 평소에 肝이 旺하여 쉽게 성을 낸데다가 肝氣가 鬱結하여 氣血의 運行이 通暢하지 못하므로 衝任胞脈이 阻滯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血胎는 經行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房事를 하여 瘀滯子宮함으로써 오는 것이며, 痰胎는 평소에 火가 盛하여 痰이 많은 데다가 때마침 經行으로 胞가 淨하게 된 때에 痰濁이 虛를 乘하여 子宮에 들어가 血과 相結하면 經이 멈추고 배가 불러 마치 孕胎한 것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73).

<癲狂>

@ 原文 : 一人 因恐懼. 遂驚氣入心 終日逐逐奔走 不避水火 與人語則 自賢自貴 或泣或笑. 切其脈 上部皆弦滑. 左部勁於右. 蓋溢膈中. 灌心胞 因驚而風 經五藏耳. 即投以涌劑. 涌痰涎一類(74)器. 徐以驚氣丸. 服之盡一劑病瘳.

附滄州 又治一人 寓僧舍病狂 其脈三部皆弦 直上下行. 而左寸口尤浮滑. 曰此風痰留心胞證也. 以藥涌吐 痰沫四五升 即熟睡竟日 及寢則病盡去 以安神之劑調之. 全愈.

@ 解說 : 한 사람이 恐懼로 인해 驚氣入心하여 終日도록 奔走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스스로 賢明하고 貴한 것 처럼 하며 或泣或笑하였다. 脈을 보니 上部는 모두 弦滑하고 왼쪽이 오른쪽 脈에 비해 強했다. 이것은 驚風이 膈中에서 넘쳐 心胞를 지나 五藏에 이른 것이니, 涌劑를 投與하여 痰涎을 吐해내도록 해야 낫는다고 하였다.

呂가 절에 머무르면서 狂病患者를 治療했는데, 三部脈이 모두 弦하고 直上下行하며 左寸口脈은 더욱 浮滑하였다. 이것은 風痰이 心胞에 머물러 생긴 것이니 涌吐痰하는 藥을 쓰고 후에 安神之劑로 調理한 즉 좋아졌다고 하였다.

위의 예에서 모두 脈象이 滑한 것을 共通의으로 들고 있다. 滑脈은 停痰에 나타나는 脈으로(75), 때문에 위

의 두 예에서 去痰을 爲主로 한 治療法을 提示하고 있다.

3.11. 李士材 醫案

李中粹의 字는 士材이고 號는 念菴이며, 著書로는 內經知要, 刪補頗生微論, 傷寒括要, 醫宗必讀, 士材三書, 本草通原, 診家正眼 등이 있다.

<鬼疰>

@ 原文 : 文學朱文哉 徧體如蟲螫(76). 口舌糜爛. 朝起必見二鬼 執盤浪以獻. 自謂不祥將死 李診其寸脈乍大乍小. 意其爲鬼祟 細察兩關弦滑且大 遂斷爲痰飲之疰 投痰丸三錢. 雖微有所下 而病患如舊 更以小胃丹二錢與之. 復下痰積 及水十餘碗 徧體之痛減半 至明早鬼亦不見矣. 更以人蔘三錢 白朮二錢 煎湯服 小胃丹三錢. 大瀉十餘行 約有二十碗 病若失矣 乃以六君子爲丸. 服四觔(77)而瘳.

@ 解說 : 한 사람이 온몸이 벌레에 쏘인 것 같고 口舌糜爛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꼭 두 鬼神이 밥을 지어 바치는 것을 보곤 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상스럽지 못하니 장차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李가 診脈을 해보니 寸脈이 乍大乍小하여 鬼祟의 脈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觀察하니 兩關脈이 弦滑且大하므로, 痰飲이 원인이 된 것으로 단정하였다. 역시 滑脈이 辨證의 要點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頭痛>

@ 原文 : 少宰蔣恬庵 頭痛如破 昏重不寧 風藥 血藥 痰藥 久治無功. 李曰 尺微寸滑 腎虛水泛 爲痰也. 地黃四錢 山藥 丹皮 澤瀉各一錢. 茯苓三錢 沈香八分 日服四貼 兩日輒減六七 更以七味丸 人蔘湯 送五日 其痛若失.

@ 解說 : 한 사람이 頭痛如破하면서 昏重不寧하였다. 風藥, 血藥, 痰藥으로 오래 治療받았으나 效果가 없었다. 李가 말하기를 尺微寸滑하니 腎虛水泛하여 痰이 된 것이 原因이라 하였다.

腎虛水泛은 腎陽이 虧損되어 水液을 溫化할 수 없으므로 水邪가 위로 넘쳐올라가거나 皮膚로 넘쳐나가 생

7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婦人小兒科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p. 32,33,35,45,247, 1987.

74) 세수할 회.

75) 朴奘 :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pp. 260-261, 1996

76) 蝨蝨.

77) 觔 兩, 열댓냥중 兩.

기는 것으로, 周身浮腫, 腹脹滿, 尿少, 或兼呼吸氣粗, 喘咳痰鳴의 症狀이 있어 溫陽利水시켜 治療한다고 하였다⁷⁸⁾.

3.12. 虞天民 醫案

虞搏의 字는 天民이고 自號를 花溪恒德老人이라 했으며, 著書로는 醫學正傳, 方脈發蒙, 蒼生司命 등이 있다. 丹溪와 同鄉이었으므로 그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火>

@ 原文: 一婦 年四十餘 夜間發熱 早晨退 五心煩熱 無休止時. 半年後 虞診六脈皆數 伏而且牢. 浮取全不應. 與東垣 升陽散火湯. 四服 熱減大半. 胸中覺清快勝 前再與二貼 熱悉退後 以四物 加知母 黃柏少佐炒乾薑. 服二十餘貼愈.

@ 解說: 40여세의 한 婦人이 夜間에 發熱하고 早晨에 退熱하며 五心煩熱이 계속되니 半年後에, 虞가 診脈을 해보니 六脈皆數하고 伏而且牢하였으며 浮脈은 전혀 取할 수가 없었다. 東垣의 升陽散火湯을 投與하고 이어서 陰藥을 사용하였다.

위의 例에서 夜間發熱 早晨退熱의 症狀은 陰虛로 인한 發熱로 해석된다. 따라서 먼저 瀉熱을 시키기 위해 升陽散火湯을 投與하고, 이어 補陰시키기 위해 四物之劑를 쓰는 것으로 생각된다.

<癲狂>

@ 原文: 一婦年近三十 有姿色. 得一證 如醉如癡 頰赤面青 略有潮熱 飲食不美 其脈乍疎乍數而虛. 每夜見白衣少年與睡. 一醫與八物湯 服數十貼 不效. 虞見 其家有白狗 臥枕戶闕⁷⁹⁾ 虞曰 必此所爲. 命殺狗 取其心血及膽汁. 丸安神定志之藥. 以八物湯吞下. 丸藥用 遠志 石菖蒲 川歸 黃連 茯神 硃砂 側柏葉 草龍膽 等藥.

@ 解說: 잘 생긴 30세 정도의 한 婦人이 病을 얻게 되었는데, 症狀이 如醉如癡 頰赤面青 略有潮熱 飲食不美하고 脈은 乍疎乍數而虛하며, 매일 저녁 흰옷을 입은 소년이 함께 잠자리에 드는 듯한 모습을 보곤하였다.

虞가 그 집에 잠자는 방을 지키는 白狗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虞가 반드시 이것 때문에 생긴 病이라고 판단하고, 殺狗하여 心血과 膽汁을 取해 安神定志의 藥과 더불어 丸을 만든 다음 八物湯으로 넘기라고 하였다.

이상 宋·金·元·明 時代의 醫案을 살펴보았는데, 각 時代는 그 시대 나름의 독특한 學問의 特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學問의 特徵은 각 醫家의 治療方法에 융화되어 이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例는 각기 다른 時代의 背景을 가진 여러 醫家의 醫案에서, 같은 주제를 論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脈象 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辨證 및 治療方法이 相異한데서도 알 수 있었다. 즉 그러한 差異는 病을 바라보는 學問의 視覺의 差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淸時代를 包含한 歷史의 縱的인 視覺差 외에도 같은 空間에 있어서의 橫的인 差異 역시 분명히 存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향후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淸時代의 醫案研究 뿐 만 아니라, 같은 時代의 背景의 다양한 空間에 있어서의 醫案研究도 필요할 것으로 思料된다.

III. 結論

以上 中國 宋·金·元·明 時代 醫案 중 神經精神科 疾患과 關聯된 醫案을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모든 時代에 있어 辨證의 要點은 切診, 즉 脈象의 區別이었는데, 주로 弦脈은 肝病, 滑脈은 膽病, 數脈은 熱病으로 診斷하였다.
2. 宋·金·元 時代 醫家들은 七情過度에 의한 疾患例를 많이 들었으며, 그에 대한 治療로 五志相勝(悲勝怒, 恐勝喜, 怒勝思, 喜勝憂, 思勝恐), 特히 恐勝喜, 怒勝思, 喜勝憂의 例에 의한 治療法을 提示하였다.
3. 張子和 醫案에 나타난 韓醫學의 精神療法중 驚

78) 上揭書, pp. 650-651.

79) 문지방 역.

者平之療法은, 西洋醫學의 系統的脫感作法和 類似함을 알 수 있다.

4. 張景岳 醫案의 詐病에 나타난 韓醫學의 精神療法중 誑治療法은, 西洋醫學의 支持精神療法중 暗示療法과 類似함을 알 수 있다.
5. 滑伯仁 醫案중 “憂愁思慮則傷心 其人平生志大心高 所謀不遂 抑鬱積久 致內傷也.”의 말은, 西洋醫學의 精神身體障礙(psychosomatic disorders)의 概念과 類似함을 알 수 있다.
6. 頭痛의 原因으로 熱(張子和), 火(胡慎柔), 氣虛(羅謙甫), 怒(孫東宿) 등이 提示되고 있다.
7. 不寐는 心病의 觀點으로 보지않고, 臆病(汪石山), 혹은 肝에 邪氣가 있어 魂不得歸於肝(許學士)하여 오는 것으로 提示하고 있다.
8. 癲狂의 原因은 驚風(呂滄洲)과 痰熱(張子和, 呂滄洲)로 보고 있다.
9. 癇의 原因으로 痰火(朱丹溪, 汪石山), 驚(朱丹溪), 胎病(朱丹溪)이 提示되고 있다.
10. 邪祟의 原因은 熱과 驚(朱丹溪)이며, 鬼胎를 邪祟로 表現(呂滄洲)하기도 하였다.

參 考 文 獻

1. 姚若琴 외 : 宋元明清名醫類案(1), 上海, 上海書店, 1988.
2. 洪元植 :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 한국한의학회연구소 기초이론연구실 :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연구(1), 1994.12 - 1995.9.
5. 黃義完 외 : 東醫精神醫學, 서울, 現代醫學書籍社,

- 1987.
6. 任應秋 編 :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7. 李尙仁 : 本草學, 서울, 修書院, 1981.
8. 申佶求 :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9. 李定均 : 精神醫學, 서울, 一潮閣, 1987.
10. 李丙允 : 精神醫學辭典, 서울, 一潮閣, 1990.
11. 김동일 외 :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출판사, 1990.
12. 金相孝 :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9.
13. 張三植 : 大字源, 서울, 三省出版社, 1991.
14. 朴昶 : 入門診斷學譯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6.
15. 李尙仁 외 : 方劑學, 서울, 永林社, 1990.
16. 張機 : 金匱要略方論(欽定四庫全書 卷二)
17. 武進謝 : 中國醫學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1982.
18. 黃度淵 : 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5.
19. 金完熙 외 :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1990.
2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 漢醫學大辭典(婦人小兒科編),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7.

= ABSTRACT =

A study of clinical document in relation to Neuropsychiatric disease (Focusing on Ancient Chinese(Song<宋>, Keum<金>, Won<元>, Myung<明> clinical document)

Bo Hyung Kwon O.M.D.,
Byung Su Ku O.M.D.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according to study of clinical document in relation to Neuropsychiatric disease in Ancient Chinese(Song, Keum, Won, Myung) clinical document the result were obtained as follows.

1. A main point is Jeul-Jin<切診> in diagnosis, that is Hyun-Maeg<弦脈> is liver disease, Whual Mag<滑脈> is gallbladder disease, Sag Mag<數脈> is fever.
medicine that Sadness ,anguish and frustration induce disease.
2. Doctors in Song<宋>, Keum<金>, Won<元> enumerated many diseases are cause by emotion.
3. Oriental psychotherapy that Diseases caused by surprising must be cure by surprising is like to systematic desensitization in Western.
4. Oriental psychotherapy that pseudopsychosis must be cure by patient rely on doctor is like to suggestive therapy in western.
5. It is similar to suggestive therapy in western
6. Headache is caused by fever, energy deficiency and angry.
7. Insomnia is not caused by heart disease, but gallbladder or liver.
8. Schizophrenia is caused by shocking and a sort of fever.
9. Epilepsy is caused by a sort of fever, shocking and fetal disease.
10. Schizophrenia(in case of manic state) is caused by fever and shocking, and imaginary pregnancy is considered as schizophrenia.